

보도시점 1.26.(월) 조간 < 1.25.(일) 12:00 >

지원단가 60% 상향 등 혁신 창업기업 성장 지원 강화, '26년 틱스 지원계획 공고

- 13년 만의 지원단가 상향, 후속 지원 제공 등 R&D 지원을 대폭 확대
- 지역기업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에 50% 우선할당 및 수도권 대비 투자 요건 50% 완화
- 기후테크, 소셜벤처 등 ESG 기업에 10% 우선할당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「2026년 틱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」를 1월 26일(월) 실시한다고 밝혔다.

틱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·보육하고, 정부가 연구개발(R&D)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.

올해는 작년보다 100개사 늘어난 800개사를 선정해 R&D 자금을 지원하며, 비R&D(사업화) 자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6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.

올해 틱스 지원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R&D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. 틱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최초로 R&D 일반트랙 지원단가를 2년 5억원에서 2년 8억원으로 상향한다. 이에 맞춰 틱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, 유망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.

아울러, R&D 딥테크트랙의 지원대상을 개편*하여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한다.

* (R&D 딥테크트랙 지원대상) 틱스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→ 일반트랙 졸업 기업

둘째, 지역 틱스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R&D 일반트랙 전체 모집물량의 50%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하고, 투자요건도 수도권 기업 대비 50% 완화(수도권 2억원, 비수도권 1억원)한다.

셋째, 선정평가 과정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요소를 반영한다. 기후 테크·소셜벤처 등 ESG 기업에 R&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%를 우선할당하고,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*한다.

* (R&D 일반트랙) 가점 부여, (R&D 딥테크트랙) 필수 요건으로 설정

넷째,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. R&D 딥테크트랙은 기존 2회 대면평가를 1회로 통합하고, 비R&D는 대면평가에서 서류평가로 전환한다.

조경원 창업정책관은 “AI·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 창업기업의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”면서, “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-Startup 누리집 (www.k-startup.go.kr)의 「2026년 틱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」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창업정책관 신산업기술창업과	책임자	과 장	이준희 (044-204-7640)
		담당자	사무관	지홍진 (044-204-7645)
			주무관	박상혁 (044-204-7652)